

재미 한인 남성의 우울증 실태 및 영향요인*

조 인 주[†]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본 연구의 목적은 재미 한인 남성들의 우울증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민관련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은 나이, 학력, 직업, 수입이고, 이민관련 특성 변인은 미국거주기간, 시민권취득 여부, 문화적응도이다. 심리사회적 특성 변인은 분노,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나이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엘에이 카운티에 거주하는 재미 한인 결혼 남성들을 편의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310부이고 회수된 201부 중 응답이 불충분한 5부를 제외한 196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월수입, 분노,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가 연구 참여자들의 우울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이, 학력, 직업, 시민권취득 여부, 문화적응도는 우울증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정신건강, 우울증, 우울증 영향요인, 재미한인남성

* 본 논문은 2010년도 원광대학교 교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조인주,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복지보건학부,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Tel : 010-5449-4334, E-mail : injucho@wku.ac.kr

미국 내의 한인 인구는 1965년 미국 이민법 개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mendments of 1965)으로 인해 급속한 증가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 인구 조사국(U. S. Census Bureau, 1990; 2000)에 의하면, 재미 한인 인구는 1970년도에 약 7만 명, 1980년도에 약 35만 명, 1990년도에 약 80만 명, 그리고 2000년도에 약 108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공식적인 인구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한인 유학생, 사업 또는 교육 목적의 단기체류자, 또는 불법체류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재미 한인들은 보다 나은 자녀 교육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국 이민을 선택했지만, 유럽계 이민자들과는 달리 언어와 외모가 미국인들과 크게 달라 한인들은 문화적 이질감과 소외감으로 미국 사회에 쉽게 동화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미국 사회에의 적응과정에서 재미 한인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언어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 가치관과 역할의 변화, 문화 차이 등이 그것인데, 이는 정신 건강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Kuo (1984)는 아시아계 이민 집단, 즉 중국, 일본, 필리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유병률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한인의 우울증 평균 점수가 다른 세 집단 보다 가장 높았으며 이는 흑인들과 남미계 이민자들(Hispanics)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수치라고 보고하고 있다 (Kuo, 1984). 이 연구에서는 재미 한인들이 소수민족인 다른 아시아계와 남미계 이민자들에 비해 이민생활 적응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울증을 더 많이 앓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미 한인들이 심각할 정도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재미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Mui, 2001; Han, Kim, Lee, Pistulka, and Kim, 2007)과 재미 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Wu, Kviz, and Miller, 2009; Kim, 1998; Shin, 1994)이다. 위의 기존연구들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거주하는 일반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우울증 관련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인데, 그 중 재미 한인 남성들의 우울증 실태와 영향요인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Hart(2001)는 남성의 우울증은 정신건강 전문가에 의해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무시되어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남성의 우울증 유병률이 평가절하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울증을 겪는 남성은 정신건강 전문가에 의한 치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조사 연구에 있어서도 주목받지 못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Hart(2001)는 2,000만 미국 남성이 일생에 한 번은 우울증을 경험하며, 미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의 약 80%가 남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남성 우울증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있다. 남성은 스스로 강해야만 한다는 믿음으로 인해 우울증을 부인하여 문화적으로 은폐되어온 경향이 있다. 또한 우울증 자체에 무관심하거나 회피하려는 남성들의 태도는 우울증 인식에 방해가 되어 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또는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감정의 인지와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에서 자란 한인 남성들은 감정 표현 불능증(alexithymia) 상태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한 속담인 ‘남자는 일생에 세 번만 울어야 한다!’처럼 남성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감

정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낙심, 좌절, 슬픔을 느껴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설령 인지한다 해도 남자로서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써 모르는 척하거나 표현하지 않으며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재미 한인 남성들은 새로운 나라인 미국으로의 이민과 이민 적응과정에서 겪는 언어장벽, 제한된 경제자원, 소수민족이라는 신분과 편견, 차별, 성역할의 변화, 문화적 가치의 대립, 사회적 고립 등은 그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조인주, 2010). Hart(2001)가 지적한 일반적인 남성의 특징과 같이 재미 한인 남성들도 술, 분노, 공격성, 짜증, 약물남용 등으로 정서적 고통을 감춰왔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민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에 취약한 재미 한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우울증 실태를 알아보고,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 재미 한인 남성의 우울증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재미 한인 남성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재미 한인들의 특성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은 1882년 한미무역협정 체결 이래 시작되었고(이주일, 정지원, 이정미, 2006), 그 후 한인들의 미국 이민을 급속히 증가시킨 계기는 1965년 미국 이민법 개정이었다(Chang, 2005). 1990년에서 2000년 사

이에는 한인들이 미국 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이민 집단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Cho, 2007). 미국 내에서 재미 한인들은 ‘최근 이민자들(newer immigrants)’로 간주된다. 이는 다른 아시아 이민 집단들에 비해 이민 역사가 짧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재미 한인들의 약 23%만이 미국에서 태어나 약 3/4의 한인들은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인식한다는 미국 인구 조사국(U. S. Census Bureau, 2000)의 보고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가 짧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Hurh와 Kim(1988)이 조사한 재미 한인들의 이민 선택 이유는 경제적 기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남 35.7%, 여 23.3%), 자신의 교육을 위해서(남 21.5%, 여 14.8%),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남 14.1%, 여 14.8%), 다른 가족들과의 결합을 위해서(남 18.7%, 여 40.4%)의 순으로 나타났다(Hurh and Kim, 1990a 재인용). 재미 한인 남성들의 주된 이민 동기가 경제적, 교육적 기회인 것에 비해 여성들은 주로 다른 가족 또는 친척과의 결합과 경제적 기회를 갖기 위함이었다.

재미 한인들의 학력은 재미 한인들 중 약 86% 이상이 고졸 이상, 약 44%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재미 한인들의 학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U. S. Census Bureau, 2000). 그러나 이런 높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재미 한인들의 1999년 기준 1인당 수입은 \$18,805로 전체 아시아인들의 1인당 수입인 \$21,82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U. S. Census Bureau, 2000), 최빈민층(below poverty line)으로 살아가는 재미 한인 비율은 약 15%로 다른 아시아계 그룹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U. S. Census Bureau, 1990).

재미 한인들은 직업과 교육에 있어서 보다 나은 기회를 갖기 위해 미국 이민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위가 더 낮은 직업에 종사하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적으로 재미 한인 남성의 약 70%이상은 한국에서의 직업이 사무직이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미국에서의 대체적인 직업은 자영업으로 나타났다(Rhee, 1997). 즉, 세탁소, 주유소, 식료품 가게, 주류 상점 등의 비숙련 노동을 주에 휴일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게 한국에 비해 힘든 일을 휴가도 없이 장시간에 걸쳐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재미 한인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Nah, 1993).

더욱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재미 한인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가정 내 역할 변화에 적응하면서 가정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 중 가장 큰 문제로 부부갈등(marital conflict)과 청소년 문제가 대두된다(Min, 1993). 재미 한인 이민가정에서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 등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해져서 양성적이고 평등한 역할분담과 성역할태도로의 전환이 요구되어진다. 한 연구에 의하면, 재미 한인 여성들이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취업했던 비율이 20%였는데, 이민 온 후 미국에서의 취업률은 70%로 나타나 재미 한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Min, 1991). 이렇게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유지하려는 재미 한인 남성은 부부역할을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여 역할분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부부사이에 갈등이 초래된다. 결국 이는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남성 성역할과 우울증 관계를 알아본 박수애와 조은경(2002)의 연구에서는 40-50대 중장년 남성 집단에서 가정에 대한 책임이 강할수록 우울증이 높이 나타남 결과를 제시해 한국 남성의 가정 내 역할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Nah(1993)는 재미 한인 남성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는 언어장애와 미국 제도에 대한 무지 등으로 가부장적인 그들의 지위에 불안과 위협을 느끼면서 점차 방어적이고 저항적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한인 남성들이 문화차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그들의 정신 건강에 해가 됨은 물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재미 한인들의 높은 이혼율은 부부갈등, 가정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미국의 소수민족 중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집단 중 하나가 재미 한인들로 나타났다(Rhee, 1997). 남편의 신체적 폭력은 재미 한인들이 이혼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로 밝혀졌고, 그 뒤로는 외도, 도박, 음주, 경제적 부양책임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Rhee, 1997). 이는 재미 한인 남성의 아내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한다. Kim과 Zane(2004)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분노 조절 비교 연구를 재미 한인 남성과 재미 유럽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Kim and Zane, 2004)에서는 재미 한인 남성들이 재미 유럽인 남성들보다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고, 분노 조절은 더 못하였으며,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 한인 남성들의 직업적, 경제적 스트레스가 더 높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겪는 문화적응 스트

레스를 분노의 원인으로 보았다(Kim and Zane, 2004). 이렇듯 이민생활과 새로운 문화 적응 과정에서 느끼는 심한 좌절감과 스트레스는 재미 한인들의 분노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미 한인들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인으로서의 높은 민족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 문화수용도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재미 한인들은 다른 이민 집단들과 달리 한인들끼리 집단적으로 체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신문과 방송을 접하며, 한인들과 어울리고, 한국 문화를 선호한다(조인주, 2010; Hurh and Kim, 1984). 이처럼 재미 한인들은 한인위주의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미국 문화와 미국인들로부터는 분리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재미 한인들은 새로운 문화와 사회에 적응하면서 부딪히는 언어장벽, 편견과 차별,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새로운 문화집단, 즉 주류사회에 접촉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회피하면서 한국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재미 한인들의 우울증

많은 선행연구들은 재미 한인들이 다른 아시아인들에 비해 우울증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Kuo(1984)는 시애틀 지역에 거주하는 499명의 아시아인들 즉,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필리핀인들을 대상으로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CES-D) 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을 측정하였다. Kuo(1984)의 연구에서 아시아인들의 CES-D 평균 점수는 9.38로 백인의 7.96보다 높아 아시

아인들이 우울증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재미 한인들의 CES-D 평균 점수는 14.37로 필리핀인들의 9.72, 일본인들의 7.30, 중국인들의 6.93보다 현저히 높아 재미 한인들의 우울증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려주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재미 한인들의 우울증 평균 점수를 보면, 직업에 있어서는 가정주부, 실업, 파트타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수입은 \$12,500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12,500-\$24,999, \$25,000-\$39,999, \$40,000 이상의 순으로 나타나 수입이 낮을수록 우울증 평균 점수가 높았다. 교육은 고졸 이상이 CES-D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대학 중퇴, 대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증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으로 보면 40-59세와 60세 이상의 우울증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8-29세, 30-39세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CES-D 평균 점수가 14.94로 여성의 13.6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Kuo(1984)는 재미 한인들이 다른 아시아인들보다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는 원인을 미국 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설명하였다. 다른 아시아인 그룹의 미국 체류 기간 평균이 15년 이상인데 비해 재미 한인들은 7년으로 미국 거주 기간이 약 두 배 이상 짧아 미국 생활에 상대적으로 덜 적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재미 한인들이 그들의 교육 수준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직업을 갖게 되는 것도 우울증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재미 한인의 69%가 영어 배우는 것이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음을 지적하며 재미 한인들에게 언어적응은 특별히 더 어려운 일임을 언급하였다.

Lin, Lau, Yamamoto, Zheng, Kim, Cho, and

Nakasaki(1992)는 엘에이지역에 거주하는 109명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에 관한 연구 조사를 하였다. 이 연구(Lin et al., 1992)에서 재미 한인들의 CES-D 평균 점수는 12.64였고, 평균 점수 15점 이상은 14.7%로 나타났다. Lin et al.(1992)은 부부갈등, 가정폭력, 음주, 세대 갈등 등의 문제들을 재미 한인들의 정신건강, 특히 우울증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Kuo(1984)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Lin et al., 1992)에서도 재미 한인들의 미국 거주기간이 다른 아시안 이민 집단보다 짧은 사실을 거론하며 재미 한인들은 이민 적응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Hurh와 Kim(1990a)은 시카고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622명 재미 한인들의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보고된 재미 한인들의 CES-D 평균 점수는 12.6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CES-D 평균 점수는 12.3으로, 여성의 평균 점수는 12.9로 조사되었다. 개인적 특성과 우울증과의 차이분석 결과, 결혼 상태와 직업은 재미 한인 우울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한 사람들보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우울증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과 관련한 회귀분석에서는 친구, 친척, 이웃, 신문, 종교, 미국거주기간 변수를 투입해 우울증 영향요인을 검증한 결과 미국거주기간만 재미 한인 남성의 우울증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회귀분석에서는 집안일, 아내의 직업, 자녀수, 가정생활만족도가 재미 한인 남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가정생활만족

도만이 우울증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미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친구, 친척, 이웃의 지지, 읽는 신문의 언어(한국어 또는 영어), 종교, 집안일, 아내의 직업, 자녀수 등은 재미 한인 남성의 우울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ui(2001)는 67명의 60세 이상 재미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방법, 우울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우울증은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로 측정되었는데, 회귀분석 결과는 건강상태, 거주형태, 스트레스성 사건, 가족도움에 대한 만족도, 좋은 친구 수는 재미 한인 노인들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과 연령은 우울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Han, Kim, Lee, Pistulka, and Kim(2007)은 205명의 60세 이상 재미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우울증 측정도구는 Kim Depression Scale for Korean Americans를 사용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망의 수와 사회적 지지 만족도는 우울증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주희(2007)는 정상의 인지적 능력을 가진 55세 이상의 재미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울증의 영향요인을 평가하는 이론적 틀로서 George(1994)의 사회적 선행모델(Social

Antecedent Model of Depression; SAMD)을 적용하여 독립변수의 네 요인을 선정하였다. 그 네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교육, 직업, 수입, 결혼상태, 독거상태), 이민관련 요인(미국 거주기간, 이중 언어실력, 문화적 기호도), 신체건강 및 생활사건 요인(만성질환,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적 기능능력,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사회적 지지 및 대처요인(가족 사회적지지망 크기, 비가족 사회적지지망 크기, 사회적지지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증 치료경험)이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영어와 한국어의 이중 언어실력이 낮을수록, 주관적인 사회적지지 만족도가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부정적일수록, 우울증 치료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재미 한인들의 우울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는데, 재미 한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영향요인 연구의 부족으로 직접적인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재미 한인 노인의 우울증 영향요인 연구까지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에 바탕 하여 재미 한인 남성들의 우울증 상태는 어느 정도이고,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민관련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 요인이 재미 한인 남성들의 우울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재미 한인들의 우울증 관련 기존 연구에서는 분노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않았는데, 재미 한인 남성의 특성인 높은 수준의 분노 경험과 폭력 사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특성으로 분노를 포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우울증이며,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나이, 학력, 직업, 월수입이 포함되고, 이민관련 특성으로는 미국거주기간, 시민권취득 여부, 문화적응도가 포함되며, 심리사회적 특성으로는 분노,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가 포함된다.

방 법

연구 대상자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나이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엘에이 카운티에 거주하는 재미 한인 결혼 남성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엘에이 카운티 지역에 있는 종교단체, 한인단체와 기관, 한인 상가들 중 접촉 가능한 26개 기관을 방문하여 편의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7월부터 9월이며, 총 3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01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결측값이 많은 5부를 제외한 19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와 자료수집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Cho(2008a)의 선행연구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우울증은 CES-D 척도(Radloff, 1977) 20문항을 사용하여 4점 척도(0=거의 없다, 1=가끔, 2=자주, 3=거의 항상)로 측정되었다. 역으로 제시된 4문항은 역코딩 처리 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6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의 나이, 학력, 직업, 수입에 대한 정보

를 수집하였다. 나이는 조사 당시 연령으로 측정하였고, 학력은 '고졸 이하(1), 2년제 대학 졸업(2), 4년제 대학 졸업(3), 대학원 졸업 이상(4)'으로 측정하였다. 직업은 직업의 유무(1=예, 0=아니오)로, 수입은 '\$2,000미만(1), \$2,000-\$3,999(2), \$4,000-\$5,999(3), \$6,000-\$7,999 (4), \$8,000이상(5)'로 측정하였다.

이민관련 특성은 미국거주기간, 시민권취득 여부, 문화적응도로 파악하였다. 미국에 온 나이로 미국거주기간을 측정하였고, 시민권취득 여부는 시민권자(1), 비시민권자(0)으로 측정하였다. 문화적응도는 Moon(2002)이 개발한 문화적응척도 20문항 중 언어사용과 관련된 4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어와 영어 중 어느 언어로 읽고 말하는지, 텔레비전을 보는지, 라디오를 듣는지, 신문을 읽는지에 대한 4가지의 질문을 5점 척도(1=한국어만, 5=영어만)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79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특성은 분노, 결혼만족도, 사회적지지로 파악하였다. 분노는 Aggression Questionnaire Short Form(Buss and Warren, 2000) 15문항을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2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는 Fowers and Olson(1989)의 ENRICH 결혼척도(Enriching and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Marital Inventory)의 하위영역인 결혼만족도 10문항을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역으로 제시된 5문항은 역코딩 처리 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4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Lubben Social Network Scale-6(Lubben and Gironda, 2003)의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만나거나 전화통화로 사적인 대화 또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척과 친구수를 6점 척도(0=없음, 1=1명, 2=2명, 3=3-4명, 4=5-8명, 5=9명 이상)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2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먼저, 빈도와 백분율로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이민관련 특성을 알아보았고,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를 알아보았다. 또한, 우울증이 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울증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민관련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의 순서에 의해 해당 변수를 투입하여 각 특성의 독립변수가 첨가될 때의 회귀모형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결 과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나이의 범위는 26-64세이며, 평균은 47.42세(표준편차 9.69세)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50-59세가 31.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0-49세가 29.2%, 30-39세가 22.9%, 60-64세가 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대졸 이상이 63.3%(4년제 대학 졸업이

33.2%, 대학원 졸업 이상이 30.1%)로 응답자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2년제 대학졸업은 19.7%, 고졸이하는 17.1%로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인 93.3%는 직업이 있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월 수입은 \$8,000 이상(26.3%), \$2,000 - \$3,999(24.7%), \$4,000 - \$5,999(21.1%), \$6,000 - \$7,999(13.7%), \$2,000 미만(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수의 특성

이민관련 특성인 미국거주기간, 시민권 취득 여부, 문화적응도를 먼저 살펴보면, 미국거주기간은 0-40년의 범위로, 평균은 15.73년(표준편차 9.94)으로 조사되었다. 미국거주기간 분포로 보면, 가장 많은 응답자인 20.1%는 5년 이하였고, 그 다음으로 6-10년이 16.4%, 11-15년이 15.9%, 16-20년과 26-30년이 각각 13.8%, 21-25년이 12.7%, 31년 이상이 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약 42%는 미국 시민권자로, 약 58%는 비시민권자로 응답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적응도는 가능점수가 4-20점의 범위인데 실제 점수는 4-17점으로 조사되었고, 평균은 8.18(표준편

차 3.23)로 중간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심리사회적 특성인 분노,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표 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분노는 15-62점의 실제 점수범위에서 평균이 28.77(표준편차 6.94)로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 분노의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 증상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혼만족도는 10-50점의 실제 점수범위에서 평균 36.10(표준편차 6.84)으로 나타나 중간점수보다 약간 높게 조사되었다. 결혼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0-25점의 실제 점수범위에서 평균 12.31(표준편차 5.46)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를 받는 친척과 친구 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우울증을 보면, 가능 점수범위가 0-60점인데 실제 점수범위는 0-35점으로 나타났고, 13.10(표준편차 7.18)의 평균 점수로 조사되었다(표 1 참조). 본 조사에서 나타난 평균 점수는 Radloff(1977)가 제시한 임상 우울증으로 볼 수 있는 최소 기준 점

표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구 분	변 수	빈도(명)	문항 수	가능 점수범위	실제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이민관련특성	문화적응도	191	4	4-20	4-17	8.18	3.23	.79
	분노	184	15	15-75	15-62	28.77	6.94	.82
	결혼만족도	174	10	10-50	10-50	36.10	6.84	.84
심리사회적 특성	사회적지지	194	6	0-30	0-25	12.31	5.46	.82
	우울증	179	20	0-60	0-35	13.10	7.18	.86

주: 1) 각 문항의 빈도수가 다른 것은 무응답이 있기 때문임

수인 16점보다 낮은 점수이다. 한편, CES-D 평균 점수가 16점 이상인 응답자는 32.4%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1/3 정도는 경증 이상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에서와 같이 문항별로 보면, 응답자의 16.9%는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는 문항에

‘자주’ 또는 ‘거의 항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12.8%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문항에, 11.5%는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문항에, 10.8%는 ‘잠을 설쳤다’라는 문항에 ‘자주’ 또는 ‘거의 항상’이라고 응답하였다. 거의 항상 슬펐거나 사람들이

표 2. 연구 대상자들의 우울증

문항	거의 없다 명(%)	가끔 명(%)	자주 명(%)	거의 항상 명(%)	평균(SD)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여겨졌다.	82(42.3)	99(51.0)	12(6.2)	3(0.5)	0.65(0.62)
먹고 싶지도 않고, 입맛이 없다.	127(65.5)	53(27.3)	11(5.7)	3(1.5)	0.43(0.67)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어도 울적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125(64.1)	57(29.2)	10(5.1)	3(1.5)	0.44(0.67)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다. [Ⓜ]	21(10.9)	71(37.0)	62(32.3)	38(19.8)	1.61(0.93)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기가 어려웠다.	85(44.3)	85(44.3)	19(9.9)	3(1.6)	0.69(0.71)
우울했다.	101(52.1)	78(40.2)	13(6.7)	2(1.0)	0.57(0.67)
내가 했던 모든 일은 성과 없는 노력뿐이었다.	99(51.3)	80(41.5)	10(5.2)	4(2.1)	0.58(0.69)
미래가 희망적으로 느껴졌다. [Ⓜ]	21(10.9)	61(31.6)	73(37.8)	38(19.7)	1.66(0.92)
내 인생은 실패였다고 느껴졌다.	125(64.1)	58(29.7)	8(4.1)	4(2.1)	0.44(0.67)
두려웠다.	124(63.9)	60(30.9)	8(4.1)	2(1.0)	0.42(0.63)
잠을 설쳤다.(잠을 잘 못 잤다)	96(49.2)	78(40.0)	20(10.3)	1(0.5)	0.62(0.69)
행복했다. [Ⓜ]	17(8.8)	73(37.6)	59(30.4)	45(23.2)	1.68(0.9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67(34.2)	96(49.0)	26(13.3)	7(3.6)	0.86(0.78)
외로웠다.	111(56.9)	72(36.9)	8(4.1)	4(2.1)	0.51(0.68)
사람들이 불친절했다.	106(54.4)	75(38.5)	12(6.2)	2(1.0)	0.54(0.66)
생활이 즐거웠다. [Ⓜ]	15(7.7)	69(35.4)	69(35.4)	42(21.5)	1.71(0.89)
몹시 울었다.	180(92.3)	13(6.7)	1(0.5)	1(0.5)	0.09(0.35)
슬펐다.	163(84.0)	29(14.9)	2(1.0)	0(0)	0.17(0.4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꼈다.	148(76.3)	43(22.2)	3(1.5)	0(0)	0.25(0.47)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86(44.1)	84(43.1)	23(11.8)	2(1.0)	0.70(0.72)
전체평균(SD)			0.65(0.36)		

주: 1) 각 문항의 빈도수가 다른 것은 무응답이 있기 때문임

2) [Ⓜ]: 역으로 제시된 문항을 뜻함

자신을 싫어하다고 느꼈던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5%는 자주 또는 거의 항상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느꼈고, 56.9%는 자주 또는 거의 항상 생활이 즐거웠다고 응답하였다.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다’의 문항에는 52.1%가 ‘자주’ 또는 ‘거의 항상’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우울증의 문항을 4점 척도 평균 점수로 보면,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가 0.86으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가 0.70으로,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기가 어려웠다가 0.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수에 따른 우울증 차이 분석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우울증과의 차이분석 결과 학력($F=5.238, p<.01$)과 월수입($F=3.560, p<.0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15.89)가 대학원 졸업 이상(10.24)보다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월 수입은 \$2,000 - \$3,999인 응답자(14.61)와 \$4,000 - \$5,999인 응답자(14.57)가 우울증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직업은 우울증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민관련 특성에서는 시민권 취득 여부($t=.712, p<.01$)가 우울

표 3. 주요변수에 따른 우울증 차이 분석

구 분	변 수	범주 또는 범위	우 울 증				
			빈도(명)	평 균	표준편차	t, F, or r	p
인구 사회학적 특성	학 력	고졸 이하	27	15.89 ^c	6.33	$F = 5.238^{**}$	$p = .002$
		2년제 대학 졸업	34	13.71 ^{abc}	7.19		
		4년제 대학 졸업	62	14.31 ^{bc}	7.32		
		대학원 졸업 이상	54	10.24 ^a	6.55		
	직 업	있 음	167	16.10	6.59	$t = 1.324$	$p = .187$
이민관련 특성	시 민 권	없 음	10	13.02	7.18	$F = 3.560^{**}$	$p = .008$
		\$2,000 미만	24	14.29 ^{ab}	7.32		
		\$2,000 - \$3,999	41	14.61 ^b	6.77		
		\$4,000 - \$5,999	37	14.57 ^b	7.40		
		\$6,000 - \$7,999	26	13.12 ^{ab}	7.12		
이민관련 특성	시 민 권	\$8,000 이상	47	9.94 ^a	6.22	$t = .712^{**}$	$p = .004$
		있 음	76	12.74	7.94		
		없 음	101	13.54	6.54		

주: 1) 각 문항의 빈도수가 다른 것은 무응답이 있기 때문임
 2) Tukey의 사후검정에서 같은 문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3) 유의수준: ** $p<.01$

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시민권자(13.54)가 시민권자(12.74)보다 우울증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표 4는 연구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우울증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학력($r=-.225, p<.01$)과 월 수입($r=-.230, p<.01$)이 부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민관련 특성에서는 문화적응($r=-.198, p<.05$)만이 부적으로 우울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특성에서는 분노($r=.444, p<.001$)는 정적으로, 결혼만족도($r=-.465, p<.001$)와 사회적 지지

($r=-.335, p<.001$)는 부적으로 우울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시민권취득 여부와 미국거주기간의 상관계수가 .714로 높게 나타나 두 변수 중 앞서 실시한 차이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 시민권취득 여부를 회귀분석 모델에 포함하기로 한다.

우울증 영향요인 분석

우울증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전에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재검토하였다. 각 변수들은 .636에서 .851사이의

표 4. 연구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 나이	1										
2. 학력	-.267***	1									
3. 직업	-.249**	.081	1								
4. 월수입	.215*	.041	.146	1							
5. 시민권	.334***	-.161	-.022	.259**	1						
6. 거주기간	.491***	-.246**	-.138	.389***	.714***	1					
7. 문화적응	-.293***	.386***	.059	.197*	.094	.150	1				
8. 분노	-.032	-.129	-.181*	-.081	-.200*	-.120	-.206*	1			
9. 결혼만족	-.184*	.269**	.017	.039	.054	-.050	.164	-.275**	1		
10. 사회적지지	-.019	.234**	.105	.173*	.115	.136	.171*	-.204*	.277**	1	
11. 우울증	.053	-.225**	-.112	-.230**	-.066	-.076	-.198*	.444***	-.465***	-.335***	1

주: 1) 학력: 1=고졸이하, 2=2년제 대학 졸업, 3=4년제 대학 졸업, 4=대학원 이상

2) 직업: 0=없음, 1=있음

3) 월수입: 1=\$2,000 미만, 2=\$2,000 - \$3,999, 3=\$4,000 - 5,999, 4=\$6,000 - \$7,999, 5=\$8,000 이상

4) 시민권: 0=없음, 1=있음

5) 유의수준: * $p<0.05$; ** $p<0.01$; *** $p<0.001$

공차한계와 1.175에서 1.572사이의 분산팽창요인의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거주기간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을 회귀분석 모델에 최종적으로 투입하기로 하였다. 즉, 나이, 학력, 직업, 월수입, 시민권취득 여부, 문화적응, 분노,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파악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미 한인 남성들의 인구사회학적특성 요인 4개의 독립변수로 구성된 회귀식 모델 1은 우울증을 분석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F=4.902, p<.01$)으로 나타났고, 우울증을 예측하는데 약 1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력($\beta=-.217, p<.01$)

과 수입($\beta=-.225, p<.01$)이 우울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수입이 낮을수록 응답자들이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와 직업은 우울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모델 1에 이민관련 특성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이다. 즉, 인구사회학적 특성 4개, 이민관련 특성 2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총 6개의 독립변수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델 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F=3.359, p<.01$), 우울증을 예측하는 설명력은 모델 1과 비슷한 수준의 약 11%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델 1과 마찬가지로 학력($\beta=-.184, p<.01$)과 수입($\beta=-.178, p<.01$)이 우울증에 부적인 영향을 미

표 5. 우울증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구분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상수	20.321	4.319			22.335	4.838			22.522	6.894		
인구 사회학적 특성	나이	.028	.059	.038	.631	.015	.065	.020	.825	-.004	.063	-.005	.952
	학력	-1.490	.524	-.217**	.005	-1.269	.568	-.184**	.027	-.323	.528	-.047	.542
	직업	-.692	2.403	-.022	.774	-1.012	2.437	-.032	.678	-.071	2.287	-.002	.975
	월수입	-1.138	.386	-.225**	.004	-.914	.415	-.178**	.029	-.935	.392	-.179*	.018
이민관련 특성	시민권					-.885	1.193	-.062	.460	.978	1.090	.069	.371
	문화적응도					-.237	.193	-.107	.221	-.029	.179	-.013	.873
심리 사회적 특성	분노									.336	.081	.311***	.000
	결혼만족도									-.355	.083	-.322***	.000
	사회적지지									-.183	.091	-.146*	.048
	R ²		0.106				0.112				0.387		
	df		170				166				144		
	F		4.902**				3.359**				9.464***		
	p		.001				.004				.000		

주: 1) 유의수준: * $p<0.05$; ** $p<0.01$; *** $p<0.001$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직업, 시민권취득 여부, 문화적응도는 우울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모델 2에 심리사회적 특성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최종적인 모형이다. 즉, 인구사회학적 특성 4개, 이민관련 특성 2개, 심리사회적 특성 3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총 9개의 독립변수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델 3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F=9.464, p<.001$), 우울증을 예측하는 설명력은 약 39%로 모델 2에 비해 약 28%가 증가하였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수입($\beta=-.179, p<.05$), 결혼만족도($\beta=-.322, p<.001$), 사회적 지지($\beta=-.146, p<.05$)는 우울증에 부적 영향, 분노($\beta=-.311, p<.001$)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이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분노 증상을 많이 겪을수록 응답자들이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향력 순으로 변수들을 보면, 결혼만족도($\beta=-.322$), 분노($\beta=-.311$), 수입($\beta=-.179$), 사회적 지지($\beta=-.146$) 순으로 우울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에서는 모델 1과 2에서 영향력이 유의미 했던 학력이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사회적 특성 요인에 의해 학력의 영향력이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이, 직업, 시민권취득 여부, 문화적응도는 우울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재미 한인 결혼 남성의 우울증 실태를 파악하고 우울증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인 재미 한인 남성들의 우울정도는 CES-D의 평균 점수로 13.10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Lin et al.(1992)의 연구에서 밝혀진 재미 한인들의 CES-D 평균 점수인 12.64와 Hurh와 Kim(1990a)의 연구에서 제시한 재미 한인들의 CES-D 평균 점수인 12.6과 재미 한인 남성들의 평균 점수인 12.3보다 높은 점수이다. Kuo(1984)의 연구에서 나타난 다른 아시아 이민 집단의 CES-D 평균 점수와 비교해도 필리핀인들의 9.72, 일본인들의 7.30, 중국인들의 6.9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재미 한인 남성들의 우울증 상태는 심각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Kuo(1984)의 연구에서 나타난 일반 재미 한인들의 CES-D 평균 점수인 14.37과 재미 한인 남성의 평균 점수인 14.94보다는 낮은 점수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Radloff(1977)에 의해 임상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기준 점수인 16점 이상에 해당되는 연구 대상자들은 32.4%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1/3에 해당되는 재미 한인 남성들은 경증 이상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in et al.(1992)의 연구에서 15점 이상이 14.7%로 조사된 것보다 약 두 배 이상의 비율로 재미 한인 남성들의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연구 결과이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증의 차이를 보면 학력과 수입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졸 이하(15.89)의 재미 한인 남성들이 대학원 졸업 이상(10.24)의 남성들보다 우울증 평균 점수가 5.65점 높게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우울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수입은 \$8,000이상의 우울증 평균 점수가 9.94로 나타나 우울증을 가장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수입이 \$2,000-\$3,999의 14.61, \$4,000-\$5,999의 14.57에 비해 각각 4.63과 4.67 낮은 점수이다. 이 결과는 Kuo(1984)의 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직업 유무에 따른 우울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uo(1984)의 연구 결과와 상이한 결과이다. 직업에 있어서는 본 연구 대상자들의 직업 유무가 93.3%와 6.7%인 점을 상기할 때, 거의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음이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이민관련 특성과 우울증의 관계를 보면 시민권취득 여부와 문화적응도에 따라 우울증에 차이가 나타났다. 시민권취득 여부로 보면, 비시민권자가 시민권자보다 우울증상을 더 많이 겪고 있었고, 문화적응도가 낮을수록 우울증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거주기간에 따른 우울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미국거주기간에 따라 우울증에 차이가 나타난 Hurh와 Kim(1990a)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미국거주기간의 평균이 약 16년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다른 연구결과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재미 아시아인들의 우울증 유병률을 연구한 Kuo(1984)는 미국거주기간이 한인들은 7년이며 다른 아시아인들은 약 15년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본 연구 대상자들은 약 두 배 이상 미국에 오래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연구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우

울증의 상관관계를 보면 분노,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 모두 우울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분노 증상을 많이 겪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본 연구에 참여한 재미 한인 남성들은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본 연구에 참여한 재미 한인 남성들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으로는 수입이, 심리사회적 특성 요인으로는 분노,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가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중 나이, 학력, 직업과 이민관련 요인 중 시민권취득 여부와 문화적응도는 우울증과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재미 한인 남성들은 수입이 적을수록, 분노를 많이 느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우울증을 더 많이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Hurh와 Kim(1990a)의 연구에서 밝힌 재미 한인 남성의 우울증 영향요인인 미국거주기간과 가정생활만족도와 비교할 때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재미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영향요인 연구를 한 Mui(2001)와 Han et al.(2007)의 연구 결과와도 상이하다. Mui(2001)는 건강상태, 거주형태, 스트레스성 사건 외에 가족도움에 대한 만족도와 친구 수를 우울증 영향요인으로 밝혀 친구 수는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Han et al.(2007)은 우울증 영향요인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제시해 본 연구 결과는 이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세 개의 모형으로 우울증 영향요인을 검토하였다. 각 모형에서의 우울증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모델 1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만을 투입한 회귀모형에서는 학력과 수입이, 모델 2의 인구사회학적 및 이민관련 특성 변수를 투입한 회귀모형에서도 학력과 수입이, 모델 3의 인구사회학적, 이민관련 및 심리사회적 특성 변수를 투입한 회귀모형에서는 수입, 분노, 결혼만족도, 사회적지지가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를 종합해보면, 모델 1과 2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학력이 심리사회적 특성 변수들을 추가한 모델 3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학력이 재미 한인 남성의 우울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가설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매개변수를 고려한 경로 분석으로 각각의 변수가 우울증에 미치는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의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재미 한인 남성들의 우울증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실천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만족도가 재미 한인 남성의 우울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부간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향상되면 이들의 정신건강, 특히 우울증이 좋아진다는 의미이다. Min(1993)은 재미 한인들이 이민생활 적응 과정에서 가정문제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된다고 하였는데 그 중 특히 부부갈등을 재미 한인 가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보았다. 또한, 결혼생활 만족도는 재미 한인 남성들의 심리적 학대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Cho, 2008b).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이런 부부갈등, 결혼생활의 불만족 등이 재미 한인 가정 내 남편의 정신

건강, 특히 우울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따라서 가정 내의 부부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서 재미 한인 남성의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인주(2010)는 재미 한인 남성 결혼만족도 연구에서 부부의 종교적 믿음과 가치관 실천 방법의 만족도가 이들의 가장 높은 결혼만족도의 내용으로 보고하였다. 즉, 부부간의 종교생활 일치가 재미 한인 남성의 결혼만족도를 가장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교생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Kim과 Hurh(1993)의 연구에서는 재미 한인 이민자들의 70% 이상이 한인 교회에 다닌다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민 전에는 비종교인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즉, 미국에 이민 온 후 종교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이는 재미 한인 이민사회에서 종교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결과라 하겠다. 한인 교회는 재미 한인들에게 이민생활의 의미, 소속감, 안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기관으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해 재미 한인들의 이민 생활에 대표적 기관이 되었다(Hurh and Kim, 1990b). 따라서 재미 한인들의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종교기관과 연계하여 우울증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하고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분노는 결혼만족도 다음으로 재미 한인 남성의 우울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분노조절 능력이 향상되면 이들의 정신건강, 특히 우울증이 좋아진다는 의미이다. Kim과 Zane(2004)은 재미 한인

남성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분노조절 능력이 재미 유렵인 남성 가해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재미 한인 남성들은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고, 분노조절을 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노는 재미 한인 남성들의 높은 가정폭력 발생률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재미 한인 남성들이 분노의 원인, 상태, 그리고 해결 방안 등을 인지하거나 배울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재미 한인 남성들의 정신건강, 우울증을 대처하는 프로그램 또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가 그 다음으로 재미 한인 남성의 우울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만나거나 또는 전화통화를 하거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도움을 부탁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의 수가 많으면 이들의 정신건강, 특히 우울증이 좋아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울증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실행할 때 사회적 지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 휴일 또는 휴가 없이 계속되는 노동, 힘든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재미 한인의 특성상 이들은 친척과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재미 한인들은 종교 기관을 통해 신앙생활은 물론 개인문제, 자녀문제, 사업문제 등의 정보를 얻거나 상담을 받기도 하며 친밀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여 삶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인주, 2010). 그러므로 종교 기관을 사회적 지지망으로 활용하면 재미 한인 남성의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어 결과적으로 심리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남성의 우울증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전문가나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받지 못하여 재미 한인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우울증 현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는 재미 한인 남성의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본질적 또는 사회적 압력에 의해 ‘감정이 마비’되어 우울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Hart, 2001). 이는 우울증 자체에 대한 인식을 회피하기 때문으로 보는데, 이런 회피는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Hart, 2001). 따라서 재미 한인 남성, 넓게는 누구나 남성도 우울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울감이 느껴질 때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울증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가장 빨리 낫는 질병이기도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중증의 정신질환, 더 나아가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우울증상을 점검하고, 우울증이 의심되는 대상에게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단을 통해 우울증을 조기발견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우울증에 대한 홍보 또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낯선 땅,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미 한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우울증 실태와 영향요인을 알아보았다. 특히 인구사회학적, 이민관련, 심리사회적 특성이 재미 한인 남성들의 우울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것은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라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자가 엘 에이 카운티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모집한 재미 한인 남성들로 이루어져 연구결과를 미국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에게 일반

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박수애, 조은경. (2002). 남성 성역할이 우리나라 남성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77-103.
- 안준희. (2007). 한인 이민노인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7(3), 597-616.
- 이주일, 정지원, 이정미. (2006). 미국거주 한인 노인과 국내노인 간 행복감의 차이 및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169-203.
- 조인주. (2010). 재미 한인 남성의 결혼만족도 영향요인.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3, 93-120.
- Cho, I. J. (2008a). Beliefs about wife beating among Korean American men. 사회복지연구: 36, 151-173.
- Cho, I. J. (2008b). Risk factors for husband-to-wife psychological abuse in Korean American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8, 204-237.
- Buss, A. H. and Warren, W. L. (2002). Aggression Questionnaire.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Chang, C. Y. (2005). Counseling Korean Americans, pp.197-202 in C. C. Lee(ed), Multicultural issues in counseling: New approaches to diversity,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Cho, I. J. (2007). The effects of individual, family, social, and cultural factors on spousal abuse in Korean American male adult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Fowers, B. J. and Olson, D. H. (1989). ENRICH marital inventory: A discriminant validity and cross-validity assessment. Journal of Marriage & Family Therapy, 15(1), 65-79.
- Han, H., Kim, M., Lee, H. B., Pistulka, G., and Kim, K. B. (2007). Correlates of depression in the Korean American elderly: Focusing on personal resource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22, 115-127.
- Hart, A. D. (2001). Unmasking Male Depression. Tennessee: W Publishing.
- Hurh, W. M., and Kim, K. C. (1984).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A Structural Analysis of Ethnic Confinement and Adhesive Adaptation. Cranbury, NJ: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Press.
- Hurh, W. M., and Kim, K. C. (1990a). Correlates of Korean immigrants' mental health.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8(11), 703-711.
- Hurh, W. M., and Kim, K. C. (1990b). Religious participation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9(1), 19-34.
- Kim, L. I. (1998). The mental health of Korean American, pp.209-223, in Y. I. Song and A. Moon(eds.), Korean American Women: From tradition to modern feminism, Westport, CT: Praeger.
- Kim, I. J. and Zane, N. W. (2004). Ethnic and cultural variations in anger regulation and attachment patterns among Kore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male batterers.

-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0, 151-168.
- Kim, K. C. and Hurh, W. M. (1993). Beyond assimilation and pluralism: Syncretic sociocultural adaptation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Ethnic & Racial Studies*, 16(4), 696-714.
- Kuo, W. H. (1984). Prevalence of depression among Asian-American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Health*, 172(8), 449-457.
- Lin, K., Lau, J., Yamamoto, J., Zheng, Y. Kim, H., Cho, K., and Nakasaki, G. (1992). Hwa-Byung: A community study of Korean American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0(6), 386-391.
- Lubben, J. E. and Girona, M. W. (2003). Centrality of Social Ties to the Health and Well-Being of Older Adults, pp.319-350 in B. Berkman & L. K. Harooytan(eds.), *Social Work and Health Care in an Aging World*, New York: Springer.
- Min, P. G. (1991). Cultural and economic boundaries of Korean immigrant families in Atlant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5, 59-75.
- Min, P. G. (1993). The structure and social functions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6, 1370-1394.
- Moon, A. (2002). Cultural and non-cultural factors in elder abus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Research proposal submitted to Hartford Geriatric Social Work Faculty Scholars Programs.
- Mui, A. C. (2001).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among elderly Korean immigrant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3(3/4), 281-299.
- Nah, K. (1993). Perceived problems and service delivery for Korean immigrants. *Social Work*, 38, 289-296.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hee, S. (1997). Domestic violence in the Korean immigrant family.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1, 63-77.
- Shin, K. R. (1994). Psychosocial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in Korean-American women in New York City. *Women and Health*, 21, 73-82.
- Wu, M. C., Kviz, F. J., and Miller, A. M. (2009). Identifying individual and contextual barriers to seeking mental health services among Korean American immigrant women.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30, 78-85.
- U. S. Census Bureau. (1990). General population and housing characteristics, 1990(DP-1). <http://factfinder.census.gov>.
- U. S. Census Bureau. (2000). American FactFinder. <http://factfinder.census.gov>.

논문투고일 : 2010. 04. 19

1 차심사일 : 2010. 05. 07

게재확정일 : 2010. 07. 05

Prevalence of and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Korean American Men

In Ju Cho

Wonkw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in Korean American men and factors associated with the Korean American men's depression by examining how depression is affected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mmigration-related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clude age, education, occupation, and monthly income. Immigration-related characteristics include years in the U. S., being U. S. citizens, and acculturation level.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include anger, marital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Using an availability sampling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201 Korean American married men who were between the ages of 20 and 64 and resided in Los Angeles County. This study used a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Due to the unreliable responses, five questionnaires were excluded from the study. Therefore 196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es. In order to measure the respondents' depression, the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of Depression) was used in this study. In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monthly income, anger, marital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respondents' depression.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age, education, occupation, being a U. S. citizen, and acculturation.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mental health practitioners and social works are discussed.

Key words : mental health, depression, risk-factors, Korean American men